

후견갑부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효과

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

염재광 · 김태완

목 적

후견갑부의 근막통증 증후군(myofascial pain syndrome) 환자에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(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; ESWT)의 임상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후견갑부 근육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 중 단순 방사선 사진상 특이 소견이 없고, 후견갑부 근육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 없는 환자 44명(남자 10명, 여자 34명)을 대상으로 하였다. 체외충격파 치료에서 사용된 기기는 Simens Sonocur basic이었으며, 1회의 충격파 시술 시 Energy flux density(EFD)는 0.16~0.25 mJ/mm², 4Hz frequency, 총 2000~3500회의 충격파가 근육의 압통 부위에 집중되도록 하였다. 통증의 호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치료 전, 치료 후 8주, 16주에 휴식 시와 운동 시의 통증의 정도를 VAS(visual analogue scale)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통증(증상)의 호전 여부를 4단계로 나누어 환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.

결 과

휴식 시 근막 통증의 VAS는 치료 전 평균 6.6에서 치료 후 8주에 평균 3.5, 16주에 평균 1.2로 개선되었고, 운동 시 통증 VAS은 치료 전 평균 7.9 에서 치료 후 8주에 평균 4.2, 16주에 평균 2.5로 개선되었다.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변화 정도는 총 44명중 매우 만족이 17명(37%), 만족이 20명(45%), 호전이 4명(11%),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은 경우는 3명(7%)이었다.

결 론

후견갑부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 결과 통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82%,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는 93%인 것을 볼 때, 다른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후견갑부 근막통증 증후군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.

색인 단어: 후견갑부, 근막통증 증후군, 체외충격파 치료